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What do you need to know
to learn a foreign language?

폴 네이션 지음
하응천 옮김



Seed
Learning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What do you need to know to learn a foreign language?

폴 네이션 지음

하웅천 옮김

| 목차 |

들어가며 20개의 언어 학습 활동 006

요약

제 1 장 외국어 학습 전략 013

이 책에 소개된 원리를 따르면 학습에 도움이 될까?

제1원칙 학습 초점을 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을 배우라

제2원칙 학습 균형을 유지하라

제3원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적용하라

제4원칙 동기를 잃지 말고 실천하라

제 2 장 학습 초점 정하기 및 방법 023

언어 학습 동기

외국 여행을 위한 언어 학습량

컨코턴서를 사용하여 유용한 어구 찾기

어휘량 측정

제 3 장 학습 균형 - 듣기와 읽기를 통한 학습 037

듣기를 통한 언어 학습

영화 관람을 위한 어휘량

읽기를 통한 언어 학습

읽기를 통한 어휘 학습 전략

제 4 장 학습 균형 - 말하기와 쓰기를 통한 학습 051

말하기를 통한 언어 학습

글쓰기를 통한 언어 학습

제 5 장 학습 균형 - 언어 기능별 학습 061

‘의도적인 학습’ 설계

다중어구 학습

관련 단어 학습

발음 학습

문법 학습

어휘 학습

제 6 장 학습 균형 - 유창성 개발 083

듣기 유창성

말하기 유창성

읽기 유창성

쓰기 유창성

제 7 장 학습 조건 활용 095

학습 조건

학습 조건 적용

교사의 도움

교사의 임무

제 8 장 동기 유지 및 학습 지속성 107

타 언어 학습에 필요한 시간

동기 유지

학습 지속성

참고문헌 125

| 역자 감사의 글 |

이 책을 번역하는 데 동의해주신 폴 네이션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책의 출판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씨드러닝 사장님 및 편집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2017년 4월

윤킨이 금강대학교 교수 하응천

| 저자 감사의 글 |

자신의 실질적인 언어 학습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한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매우 적절한 피드백 (특히 발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고견)을 주신 데이빗 존슨(David Johnson)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언어 학습자에게 보다 실용적이고 쉬운 책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자넷 홈즈(Janet Holmes)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프랭크 보어즈(Frank Boers), 스테픈 엡스타인(Stephen Epstein), 클라우디아 배르나디(Claudia Bernardi), 니콜라 길모어(Nicola Gilmour)에게도 유용하고도 고무적인 피드백을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

폴 네이션

| 들어가며 |

이 책은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성인을 위해 쓰였다. 예를 들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또는 사모아어와 같은 언어를 해당 국가가 아니라 외국어로서 가르치는 나라에서 배우게 되는 경우 이 책은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언어를 교사 없이 혼자서 공부할 때나 교사에게 개인 과외를 받는 경우나 수업을 따라갈 때 활용할 수 있다.

20개의 언어 학습활동

이 책에는 혼자 할 수 있는 20 가지 활동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 활동들은 책 전반에 걸쳐 '활동표(activity boxes)'에 설명되어 있다. 즉 아래의 표에 나열된 이들 활동은 해당 페이지에 표로 소개되며, 그 이점도 함께 기술된다. 표의 숫자 중 예를 들어 (3.1)은 이 활동이 제3 장의 첫 번째 활동 상자에 소개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가닥 (Strand)	기술	활동 (표 번호)
의미중심 입력	듣기	들으며 읽기 (3.1)
	읽기	다독 / 좁게 읽기
의미중심 출력	말하기	역할극 (4.2) / 준비하여 말하기 (4.2)
	쓰기	읽고 쓰기 (4.4)
언어중심 학습	듣기	배껴 쓰기 (5.2)
	읽기	정독 (5.3)
	말하기	문장 또는 대화 암기하기 (4.1)
	쓰기	시차를 두고 배껴 쓰기 (5.4)
유창성 개발	듣기	반복 듣기 (6.1)
	말하기	4/3/2 (6.2)
	읽기	반복 읽기 (6.3) / 속독 (6.4)
	쓰기	10분 쓰기 (6.5) / 반복 쓰기 (6.6)
일반 목적		낱말 카드 (5.1) / 연계 스킴 (7.1) 쟁점일지 (8.1) / 철자 연습 (5.5)

이 책은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도록 소수의 연구만을 인용하였다. 더 많은 참고 문헌으로는 폴 네이션의 「ESL/RFL 듣기 및 말하기 교육」(Nation, I.S.P. (2009) *Teaching ESL/RFL Listening and Speaking*. New York: Routledge)와 「ESL/RFL 읽기 및 쓰기 교육」(Nation, I.S.P. (2009) *Teaching ESL/RFL Reading and Writing*. New York: Routledge)와 「모든 EFL 교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Nation, P. (2013) *What should Every EFL Teacher Know?* Seoul: Compass Publishing) 등이 있다.

요약

외국어를 배울 때 필요한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제1원칙: 학습초점을 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을 배워라

제2원칙: 학습 균형을 유지하라

제3원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적용하라

제4원칙: 동기를 잃지 말고 계획대로 실천하라

다음 네 가닥 원리 각각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은 동일해야 한다.

1. 의미중심 입력(듣기 및 읽기)을 통한 학습
2. 언어중심 출력(말하기와 쓰기)을 통한 학습
3. 언어중심 학습 (발음, 어휘, 문법 공부)
4. 유창성 개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함)

언어 학습활동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말하기가 주요 목표라면, 언어 학습 초기에 언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독서가 주된 목표라면, 정기적으로 많은 단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여야 하며 많이 읽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언어 학습 기법으로는 약 20 개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 기법들은 이 책의 활동 상자에 설명되어 있다.

언어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폴 네이션(Paul Nation)의 웹 사이트에서 해당 언어에 대한 120 개 항목의 ‘생존어휘(survival vocabulary)’를 파악하고 단어카드를 사용하여 학습한다. 여러분의 언어로 생존어휘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영어 목록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해당 언어를 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자(speaker)를 찾아야 한다. 태블릿이나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단어카드 학습을 위한 좋은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외국어 어구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모국어로 번역된 작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생존어휘에 능숙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영화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고 웹에서 그 영화의 스크립트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스크립트로 공부하면서 영화의 여러 부분을 반복하여 여러 번 보라.

외국어로 된 짧은 책을 사서 사전을 보면서 읽기 시작하라. 쉬운 책이 가장 좋으며 원어민 자녀가 처음 읽기를 배울 때 사용하는 책 정도의 수준이면 바른 선택이다. 책을 주의 깊게 읽고 나면 적어도 두 번은 더 빨리 읽어보아야 하며 반복되는 단어는 단어카드에 적

으면서 학습해야 한다.

쉬운 책을 매주 많이 읽는 것이 좋다.

원어민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웹을 통해 하든 정기적으로 말하기를 해야 한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작별) 인사하기, 상점에서 물건을 사기, 도움을 청하고 길을 묻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 유용한 역할극을 해보아야 한다.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역할극을 여러 번 반복하라. 학습 자료를 보관하여 몇 주 동안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용한 어구와 문장은 통째로 배워야 하지만, 이들 어구와 문장들의 각 부분을 이해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각 부분들을 이해하면 전체 어구나 문장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동의어나 반의어 또는 동일 어휘 집합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함께 학습하면 안 된다. 어휘 집합이라 함은 한 해를 구성하는 열두 달(months), 과일의 이름, 색, 신체의 부분 및 의류품목을 말한다. 이러한 쌍이나 그룹의 단어를 동시에 습득하려고 하면 단어가 서로 섞여서 배우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언어의 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발음

을 배우고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국어와는 사뭇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는 중국어와 같은 성조어를 배우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언어 학습 조건

학습활동에 필요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차를 늘려가며 반복하는 것과 언어 항목에 대한 주의 집중의 정도이다. 여러분이 이전에 마주쳤던 표현을 기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기억을 되살리고, 언어 항목을 분석하고 다듬으며 주도 면밀한 학습을 할 때 그 효과는 높아진다.

언어 학습에는 많은 일이 필요하다. 심지어 아주 재능 있는 언어 학습자조차도 언어 학습에 열심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배운 표현을 사용해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으면서 자신의 학습 동기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주 배워야 할 단어를 정하고, 읽어야 할 분량을 정하며 듣기 연습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학습 정도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제1장

외국어 학습 전략

이 책에 소개된 원리를 따르면 학습에 도움이 될까?

제1원칙

학습 초점을 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을 배우라

제2원칙

학습 균형을 유지하라

제3원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적용하라

제4원칙

동기를 잃지 말고 실천하라

제1장 외국어 학습 전략

이 장에서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따라야 하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이 원칙들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됨으로 여기에서는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1원칙 학습초점을 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을 배워라

제2원칙 학습 균형을 유지하라

제3원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적용하라

제4원칙 동기를 잃지 말고 계획대로 실천하라



이 책에 소개된 원리를 따르면 학습에 도움이 될까?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여러분이 등록한 어학코스에서 적절한 수준의 독해 및 청취를 통해 많은 양의 입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 학습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매우 어린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수업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재미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 읽기 양을 늘림으로써 학습자는 동일한 수업시간을 투자 하지만 읽기의 양이 훨씬 부족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습자들에 비해 언어 능숙도가 거의 두 배로 올라갔다. 이렇게 습득한 것들은 일년 후에도 유지되었다.

마찬가지로, 두 언어를 사용하여 만든 단어카드(bilingual word cards)를 가지고 의도적인 학습을 하는 대신 다양한 어휘 관련 연습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휘를 배우는 속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속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어학코스에 ‘제한된 시간 동안 읽기(timed reading)’와 같은 유창성 개발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해도, 총 세 시간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읽기 과정을 수강하면 외국어의

읽기 속도가 50 % 이상 향상되며 경우에 따라 그 속도가 두 배까지 향상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항상 실용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적용하면 학습효과는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제1원칙 학습 초점을 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것을 배워라

왜 언어를 배우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울지를 더 잘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일부는 그것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이미 어학코스에 등록한 상태라면,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라.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에 설명된 용도별 영어의 어휘량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및 독일어와 같은 유럽 언어의 경우에도 유사한 어휘량이 필요할 수 있다. 다른 언어도 비슷한 어휘량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없다.

우호적이고도 비공식적인 대화에 쓰일 단어의 98%에 익숙하거나

영화에서 쓰이는 단어의 98%를 알고 있으려면 6,000 개의 단어를 알아야 한다. 소설이나 신문에서 쓰이는 단어의 98%에 익숙해 지려면 약 8,000-9,000개의 단어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많은 수의 단어들이며, 원어민들은 20,000개의 단어를 알게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일년에 약 1,000개의 단어를 배운다.

하지만 차차 알게 되겠지만 모든 단어가 사용빈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가장 유용한 단어 1,000에서 2,000개의 어휘로 적절한 대화를 하고 대부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원칙 학습 균형을 유지하라

균형 잡힌 학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아마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 가닥 원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언어 코스를 원한다면,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1. 의미중심 입력(듣기 및 읽기)을 통한 학습
2. 언어중심 출력(말하기와 쓰기)을 통한 학습
3. 언어중심 학습 (발음, 어휘, 문법 공부)
4. 유창성 개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위의 네 가닥은 모두 중요하며 각 가닥에는 대략 같은 양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제6장까지 우리는 이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이 배우는 외국어에 모국어와는 다른 소리체계가 있다면 외국어의 소리체계를 학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발음을 들려주고 단지 따라 해보도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교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그리고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도 발음을 잘 배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발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여러분 자신의 목표가 단지 언어를 읽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면, 출력(네 가닥 원리2)에 소비할 시간을 읽기 입력 시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간단히 대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목표가 언어를 말하는 것에 있다면 (특히 배우는 언어의 스크립트가 어려운 경우), 입력 가닥(input strand)을 모두 음성언어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3원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적용하라

언어 학습에는 의도적인 학습과 부수적(incident)인 학습이 모두 포함되며, 여기에는 반복, 기억 되살리기,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치

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보기, 시각 자료 사용 및 의도적인 주의가 수반된다. 좋은 학습의 조건에는 또한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간섭을 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7장에서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조건들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 여기 저기에서 언급될 것이다.

언어 학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 불행히도 대답은 ‘아니오’이다. 언어 학습은 온갖 종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학습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번역 접근법, 청각-구두(aural-oral) 접근법, 조용한 방법, 암시에 의한 학습(suggestopaedia), 의사소통 접근법, 티피알(TPR: Total Physical Response) 등의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들 여러 가지 방법론은 어떤 학자들은 지지하고 어떤 학자들은 반대하기도 한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아직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학자도 없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의미중심 입력, 의미중심 출력, 언어중심 학습 및 유창성 개발의 네 가지 요소에 걸쳐 학습 기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복, 기억 되살리기,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보기, 의도적인 주의 및 심층적 처리(deep processing)가 이루

어질 수 있는 학습 조건도 중요하다.

배워야 할 가장 유용한 항목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합한 수준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원칙 동기를 잃지 말고 실천하라

많은 사람들이 언어 학습을 시작한 다음 어느 정도의 학습량이 필요한지 알게 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모국어 사용자도 모국어를 배우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 모국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그만큼 강하다.

외국어를 배울 때는 방금 배운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동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가 주변에서 사용될 때 그 언어는 그 만큼 쉽게 배울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그 기간에 실력 향상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20 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전화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간단하다. 명확한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학습동기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제8 장에서 동기 부여와 적극적인 학습활동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대체로 무언가를 배울 때 지켜야 할 매우 유용한 원칙은 ‘시간-과업능숙도 비례원리(time-on-task principle)’이다. 이 원리는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학습활동을 그만큼 많이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읽기를 배우고 싶다면 많은 것을 읽어야 하며 말하기를 배우고 싶다면 많이 말해야 한다. 이것은 다소 양에 기반한 원칙이지만 효과가 있다.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여러분은 보통 더 잘 하게 된다.

학습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원리를 지지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2장

학습 초점 정하기 및 방법

언어 학습 동기

외국 여행을 위한 언어 학습량

컨코던서를 사용하여 유용한 어구 찾기

어휘량 측정

제2장

학습 초점 정하기 및 방법

언어 학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외국어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어 학습 동기

언어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언어 학습 속도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특정 목적과 그 목적에 필요한 언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당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을 여행하고자 함에 있는가? 표 2.1은 언어를 학습하는 이유와 그 이유가 학습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2.1: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학습초점

이유	학습 초점
나는 언어에 관심이 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중요하다.
나는 이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음성언어가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 말하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추가해야 한다. 생존어휘 (Nation and Crabbe, 1993) 중 일부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나의 파트너 또는 다른 가족이 해당 언어의 원어민이다.	음성언어가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면 인사와 같은 반복되는 유용한 표현부터 시작하여 ‘식사 준비’ 또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 활동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나는 이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에서 여행하고 싶다.	여러분은 많은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생존어휘를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다. 매우 제한된 어휘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높은 수준의 유창성을 목표로 하라. 모든 생존어휘를 단어카드에 기입해야 한다.
내 작업이나 주제 영역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려면 이 언어를 알아야 한다.	읽어야 할 텍스트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제 분야의 전문용어가 그러한 텍스트에 사용되는 단어의 상당 부분(20-30% 정도인데, 이는 3-5개의 단어마다 하나에 해당)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제 분야에서 벗어난 텍스트로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주제 분야에 유용하지 않은 많은 단어를 배워야 할 것이다.
이 언어를 사용하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연구에 사용할 텍스트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단어카드에 모르는 단어를 써 넣어야 하며 반복되는 어구(phrases)의 경우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카드를 매일 공부해야 한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화식 음성언어로 시작한 다음 비즈니스 중심 대화로 이동해야 한다.

* 폴 네이션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어휘집(Vocabulary Resource Booklet)에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생존어휘를 찾아보라.

표 2.1의 이유 목록은 언어 습득 동기의 강도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렬되어 있다. 가장 강한 동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관심이 높은 느낌을 말한다. 반면 가장 약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이다. 학습자는 동기 부여의 정도에 따라 언어 학습에 적극적일 수도 소극적일 수도 있다.

● 노트 2.1 : 모든 단어가 똑같이 중요한가? ●

텍스트에서 단어의 빈도를 계산하면 텍스트의 길이와 상관 없이 동일한 패턴의 결과를 얻게 된다.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그다지 많지 않은 반면 무척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는 많다.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그 수가 매우 적다.

빈도가 가장 높은 영어 단어 10 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25%를 차지하며 빈도가 가장 높은 100 개의 단어는 약 50%를 차지한다. 한 페이지를 보고 “the”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확인해보라. 이 단어가 보이는 빈도수는 해당 페이지 영어 텍스트의 7%를 차지한다. 가장 빈번한 1,000개의 단어는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단어의 약 80%를 차지한다. 언어에 따라서는 빈도수가 이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있다.

단어를 학습할 때 먼저 빈도가 높은 단어를 배우는 것이 좋다. 이 단어들을 배우려는 노력은 이 단어들과 마주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충분히 보상받는다. 어휘 전문가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경우 약 2,000-3,000 단어를 고빈도 (high frequency) 단어로 분류하는 데 이견이 없다. 이들 단어 중 소수만이 기능어(a, of, for, like, it, one, which, that와 같은 단어)이다. 대부분은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해당한다.

스케치 엔진(Sketch Engine) www.sketchengine.co.uk를 방문하여 배우고자 하는 언어로 된 단어의 빈도 순위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책의 제2 장 시작 부분에 있는 지침을 보라). 이 단어들을 목록의 순서와 같은 순서로 배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 빈도 목록과 일치하는 100 단어를 그룹으로 묶어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는 많다.

모든 텍스트의 단어 중 절반은 해당 텍스트에서 한 번만 나타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0만 단어의 소설을 읽으면 약 5,000개의 다른 단어를 만나게 될 것이다 (Captain Blood는 115,879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5,071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자신이 마주치게 되는 다른 단어 중 절반 (2,000개가 넘음)은 한 번만 나타난다. 즉, 이 단어들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복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사

전에서 찾아보면서 공부할 경우 다시 마주치게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언어를 배우는 기술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능숙도 발달의 각 단계에서 어떤 단어가 우선 학습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낮은 빈도의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휘통제하에 이루어진 자료를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현재의 능숙도 수준에서 유용하지 않은 저빈도(low frequency) 어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Zipf's_law를 참조하라.

외국 여행을 위한 언어 학습량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 약 120개의 어구(words and phrases: 총 네 시간의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음)를 사용하면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쇼핑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길을 찾고, 표지판을 읽고, 머물 곳을 찾고, 자

신에 대해 말하고, 언어 입력을 통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생존어휘는 2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제공된다. 이들 어휘는 관광 안내 책자의 끝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어구 목록과 매우 유사하며 <http://www.victoria.ac.nz/lals/staff/paul-nation.aspx>에서 찾을 수 있다. 매우 유용한 언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존어휘를 다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언어 학습 초기에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생각이다.

컨코던서를 사용하여 유용한 어구 찾기

컨코던서(concordancer)라는 컴퓨터 기반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어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컨코던서가 관심 있는 어구의 예를 순식간에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컨코던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한 시간 정도를 할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러한 예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이 예들은 어구의 의미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떤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이 예들은 어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3. 예제의 수를 통해 어구가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4. 이 예들은 특정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는 어떤 어구를 배워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유용하며 그 단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컨코턴서란 무엇인가? 컨코턴서는 어떤 어구 또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하면 텍스트 모음(코퍼스)에서 이러한 예제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컨코턴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용하기에 가장 쉬운 것은 온라인 컨코턴서인데,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코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유용한 웹 사이트들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Netspeak	www.netspeak.org
Just the word	www.just-the-word.com
Wordneighbours	www.wordneighbours.ust.hk
Word and phrase	www.wordandphrase.info
Compleat Lexical Tutor	www.lextutor.ca

www.sketchengine.co.uk의 컨코턴서를 이용하면 시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아주 다양한 언어와 코퍼스 크기로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다른 종류로는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코던서가 있다. 이 경우 예를 찾기 위해 자신의 코퍼스를 제공해야 한다. 코퍼스를 찾거나 코퍼스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온라인 컨코던서를 사용하여 컨코던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최고의 컨코던서로는 안트컨크(AntConc)가 있는데 로렌스 안토니 (Laurence Anthony)의 웹 사이트인 <http://www.antlab.sci.waseda.ac.jp/software.html>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contrary”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얻은 컨코던서 결과를 보여주는 예이다.

1. The facts described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2. come in and wing it.” **Contrary** to some of his statements in the past, Redford in
3. are a legitimate issue, **contrary** to the view that every criticism of her intellect
4. The Sierra Club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the Supreme Court’s June 29
5. are wise and welcome. **Contrary** to what critics say, the new policy poses no
6. the literal and popular sense. On the **contrary**, “hope ... can

be situated only in

7. an experience that precedes it. On the **contrary**, language makes experience possible.

8. knowledge, be predicted. To the **contrary**, reversing human expectations, it

컨코턴서에서 출력물을 정렬하여 패턴을 더 쉽게 볼 수도 있다.

아래의 비디오를 보면 컨코턴서가 사용되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QbwgruJ4_gA

어휘량 측정

이미 일년 이상 언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영어의 경우 www.my.vocabularysize.com을 방문하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휘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자신의 어휘량을 알면 앞으로 언어 학습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읽기 자료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표2.2는 어휘 테스트 결과를 사용하여 영어로 된 읽기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표 2.2: 의미중심 입력을 위한 읽기 자료와 어휘량 일치시키기

어휘량	읽기자료
1,000 단어 이하	수준별 도서의 초급 수준에서 선택해야 한다.
1,000-2,000 단어	수준별 도서의 중급 수준에서 선택해야 한다.
2,000-4,000 단어	수준별 도서의 나머지 수준에서 선택해야 한다.
4,000 단어 이상	중간 빈도수의 수준별 도서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아쉽게도 다른 언어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휘량 테스트가 없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이와 비슷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있다.

1. 여러분이 학습중인 언어로 된 단어의 빈도 순위 목록을 확보하라. www.sketchengine.co.uk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2. 가장 빈번한 단어부터 시작하여 각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면 매 50 번째 단어를 보라 (이 경우 알고 있는 단어에 50을 곱하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지만, 어떤 언어이든 그에 대한 빈도 순위 단어 목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있다.

1. www.sketchengine.co.uk를 방문하라.
2.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 모음인) 언어 코퍼스를 ‘코퍼스 목록

(Corpora)’에서 선택하거나 또는 표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코퍼스 보기(Show all corpora)’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코퍼스가 매우 큰 경우 1-2 분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컨코던서 만들기’ 상자가 화면에 나타나도 사용하면 안 된다.

3. 맨 왼쪽에서 ‘단어 목록(Word list)’를 클릭한다. 어떤 설정도 변경하지 말고 상자 하단에 있는 단어 목록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야 하고 프로그램에서 목록이 생성되는 동안 기다려야 한다.
4. 맨 왼쪽의 목록에서 ‘저장(Save)’을 클릭한다. 처음 1,000 단어 (언어 배우기를 막 시작한 경우라면 충분한 숫자)만 원한다면, ‘단어 목록 저장(Save Word List)’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프랑스어의 첫 2,000 단어 중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려면 http://www.lex tutor.ca/tests/yes_no_fr/를 방문하라.

프랑스어를 아주 조금 알고 있다면 빈도 순위 목록은 학습에 유용한 대략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노트2.1: 모든 단어가 꼭 같이 중요한가?를 참고하라). 목록 상단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는 문법적 기능이 있으며 따라서 문장의 맥락에서 배우는 것이 좋다.

다음 장에서는 듣기와 읽기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제3장

학습 균형 - 듣기와 읽기를 통한 학습

듣기를 통한 언어 학습

영화 관람을 위한 어휘량

읽기를 통한 언어 학습

읽기를 통한 어휘 학습 전략

제3장

학습 균형 - 듣기와 읽기를 통한 학습



듣기를 통한 언어 학습

다른 언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은 자세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중심의 듣기를 하면 언어에 대한 감(feel)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여러분 자신이 말하기를 시작할 때 매우 유용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언어 사용 능력이 향상될 즈음 듣기 연습으로 좋은 방법은 다운로드가 가능한 스크립트가 있는 영화를 골라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크립트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 자막과 함께 영화를 본다. 몇 주 후 그 영화를 다시 시청한다.

마찬가지로, 수준별 도서(graded readers)들은 대체로 텍스트를 녹음한 CD를 제공한다. 독자는 책을 읽고 난 후에 CD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CD를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 활동 3.1 : 들으면서 읽기 ●

녹음 내용을 듣는 동안 같은 텍스트를 조용히 읽는다.

이 활동은 ‘읽기’를 ‘듣기’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 학습자는 듣기 자체보다는 읽으며 듣기를 선호한다. 또한 텍스트를 읽어주는CD를 들으면서 독서를 할 때 더 높은 어휘 학습 점수와 독해력 관련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다.

영화 관람을 위한 어휘량

영화에 사용되는 단어 수는 일반적으로 10,000 단어(소설은 보통 10 만 단어 이상)를 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화에는 약 1,000 개의 단어군(word family)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어들의 사용빈도 수준은 다양하다.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아무런 준비 없이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어휘(최소 3,000 단어, 바람직하게는 6,000 단어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영화에는 서로 다른 낱말들이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읽고 어휘를 공부하여 영화를

볼 준비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언어 학습의 양은 의미 있는 입력(meaningful input)을 얼마나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에서 정기적으로 듣기와 읽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읽기를 통한 언어 학습

읽기를 통해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읽기를 통해 언어 능숙도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영어에는 학습자를 위해 어휘 통제하에서 특별히 쓰여진 수준별 도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수준별 도서는 외국어 학습자를 위해 특별히 쓰여진 책이다. 따라서 어떤 수준의 학습자이건 자신에게 알맞은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수준별 도서는 통제된 어휘 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작성된다. 또한 주요 언어 교육관련 출판사들은 대부분 수준별 도서를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옥스포드대학 출판사에는 옥스

포드 북웜즈(Oxford Bookworms), 캠브리지대학 출판사에는 캠브리지 잉글리쉬 리더스(Cambridge English Readers), 펭귄출판사에는 펭귄 리더스(Penguin Readers), 하인만출판사에는 파운데이션 리더스(Foundation Readers)와 네셔널지오그래픽 리더스(National Geographic)가 있다.

옥스포드 북웜즈 시리즈에는 다음과 같은 레벨이 있다.

수준	새 단어	총 단어 수
1	400	400
2	300	700
3	300	1,000
4	400	1,400
5	400	1,800
6	700	2,500

따라서 400 단어만 알고 있어도 학습자는 시리즈의 1 단계에서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수준별 도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 하나는 책에 나오는 각각의 단어는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라도 아마도 배울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수준별 시리즈 도서는 약 3,000 단어로 끝난다. 이보다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면 4,000 단어 6,000단어 8,000 단어 수준으로 작성된 중간 빈도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들 시리즈는 무료로 읽을 수 있는데 폴 네이션(Paul Nation)의 웹사이트인 <http://www.victoria.ac.nz/lals/staff/paul-nation.aspx>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들은 전자 리더기(electronic readers)로 읽을 수 있으며 또는 태블릿 컴퓨터로도 읽을 수 있다.

수준별 도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독재단(the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책이 가장 우수한 도서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일본어에도 수준별 도서가 몇 가지 있으며 프랑스어의 경우도 그러한 도서가 조금 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경우, 원어민이 학교에서 읽기를 배우기 시작할 때 사용하는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책은 어휘력이 약한 학습자를 위해 쓰여졌으므로 어린 모국어 화자가 알지 못할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읽을 만한 것으로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 작성된 백과사전을 권하고 싶다.

둘째, 단어카드 또는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독서를 해야 한다 (제5 장 참조).

셋째, 쉬운 사전검색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 텍스트를 읽는다. 예를 들어 킨들(Kindle)이나 코보(Kobo)를 사용하면 단어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킨들에 텍스트를 넣으려면 킨들 이메일 주소를 찾아야 하는데 아마존 킨들(Amazon Kindle) 웹 사이트에 로그인 해야 한다. 계정을 선택하고 세로 메뉴의 첫 번째 제목인 계정을 클릭한다. (왼쪽 열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 맨 왼쪽 열의 킨들 계정 아래에서 개인 문서 설정을 클릭하라. 그러면 기기 또는 응용프로그램(apps)의 이메일 주소 목록이 나타난다. 읽으려는 모든 문서를 이 주소로 보내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기의 킨들 응용 프로그램에 나타난다.

넷째, 읽기를 많이 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능숙도가 높을수록, 여러분은 적절한 수준의 단어를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 ('노트 8.2: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해야 하는가?'를 참조할 것).

독서는 반복이라는 중요한 학습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된다. 즉, 독서를 통해 학습자는 단어와 단어 그룹과 문법적 구조를 여러 번 마주치게 되므로 이들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다독이라 함은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독서는 우선 재미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수준의 자료는 100 개의 실행 단어(다섯 개의 행마다 약 한 개 이하의 새로운 단어가 들어감)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두 개 이하로 포함된다. 말하자면 초급 및 중급 학습자의 경우 어휘통제하에 작성된 책(수준별 도서 시리즈)을 읽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할애하여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다. 균형 잡힌 어학코스라면 다독에 할애하는 시간이 수업시간의 1/4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의 2/3는 모르는 단어가 소수만 포함된 자료를 읽는 데 할애해야 하며 이 시간의 1/3은 읽기 유창성을 개발하기 위해 매우 쉬운 자료를 빠르게 읽는 데 보내야 한다.

영어 학습자를 위해 독해력 테스트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가 있지만 굳이 그러한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다독재단 웹 사이트 <http://erfoundation.org/wordpress/graded-readers/mreader> 참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독은 독서력과 어휘력과 다양한 언어 능력과 지식 수준을 높여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독서를 통해 학습자는 어휘와 단어 그룹과 문법적 특징을 배우게 되며 독해 기술도 향상된다. 독서는 또한 무언가에 성공했을 때 만끽하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으며, 투자하는 시간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만한 일이다.

● 활동 3.3: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읽기 ●

단일 주제 또는 단일 주제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독서하는 것을 때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읽기’라고 한다. 이 방법에는 언어 학습에 미치는 주요 긍정적인 효과가 세 가지 있다. 가장 큰 효과는 마주치게 되는 서로 다른 단어의 전체 개수를 줄이는 것이다. 많은 다른 주제를 다루게 되면 매우 다양한 어휘가 필요하고 따라서 텍스트에서 한 번만 나오게 되는 단어의 수는 그만큼 더 많아진다.

또한 같은 주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독서를 더 쉽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유용한 내용 지식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도 그 의미를 문맥에서 쉽게 추측해 알 수 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읽기’는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 (1) 전문 지식 분야, 특히 학습자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 내에 해당하는 글을 읽는다.
- (2) 신문을 읽을 때에는 같은 이야기나 일반적인 주제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읽는다.

(3) 쟁점일지를 작성한다 (활동 8.1 참조).

그러나 이미 6,000 또는 7,000 단어 이상의 어휘량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는 단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널리 읽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다양한 주제의 범위를 읽게 되면 마주치게 되는 서로 다른 단어의 수가 크게 늘어나서 배워야 할 단어가 그만큼 증가한다. 학습자 자신의 현재 능숙도에 비추어 이러한 결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읽기를 통한 어휘 학습 전략

관심 있는 책을 선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모든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일까? 책이 어휘통제하에 쓰여지지 않았거나 여러분 자신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하기 어렵다. 주된 이유는 모르는 단어가 많이 (아마도 1,000개 이상) 포함될 것이고, 그 중 대부분은 여러분 자신의 현재 어휘량에서 벗어난 단어들일 것이며 당장 읽고 있는 책에서 또는 심지어는 앞으로 읽게 될 책에서 조차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텍스트이건 서로 다른 단어의 약 절반은 한 번만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자는 텍스트의 모든 행에서

모르는 단어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그 책을 힘들더라도 끝까지 읽는 것이 좋다.

1. 이 책은 어학코스에서 선정한 텍스트이다.
2. 이 책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텍스트이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 용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3. 책의 주제가 매우 친숙하며 전문 용어는 L1(모국어)의 전문용어와 유사하다.
4. 여러분 자신이 이미 모국어로 읽은 소설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도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건너 뛸 수도 있다.

전자 버전의 텍스트를 구입하거나 스캔하여 전자 버전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한 책을 읽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스캔한 전자 책은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저작권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킨들(Kindle)이나 코보(Kobo)와 같은 전자 리더기에 텍스트를 넣으면 사전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 긴 텍스트를 읽는 대신 같은 주제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짧은 텍스트를 읽는 것도 좋다.

두꺼운 책을 다 읽었을 때 같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좋을까?

● 같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의 장점

1. 처음 읽는 것보다 훨씬 쉽다.
2. 어휘를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다.
3. 이전에 보았던 어휘를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읽기 유창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같은 길이의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

● 다른 책을 읽는 것의 장점

1. 이전 책에서 보았던 단어 중 일부를 다양한 상황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2. 배워야 할 새로운 단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장점들을 고려하면 같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며 또한 언어를 학습할 때 다시 읽기와 새로운 책 읽기를 혼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의미 있는 듣기와 읽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능숙도가 높아지면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제4장

학습 균형 - 말하기와 쓰기를 통한 학습

말하기를 통한 언어 학습

글쓰기를 통한 언어 학습

제4장

학습 균형 - 말하기와 쓰기를 통한 학습



지금까지 입력을 통한 학습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출력(말하기 및 쓰기)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듣기와 읽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 능력(receptive skills)이라고 부른다. 반면 말하기와 쓰기는 생산 능력(productive skills)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생산’하는 것은 언어를 ‘수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언어를 생산할 때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문법 구조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따르는 네 가닥 원리(principle of four strands)에 의하면, 균형 잡힌 언어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 시간의 1/4 이상을 말하기와 쓰기라는 생산능력에 할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말하기와 쓰기의 유창성 개발이 포함된다.

● 노트 4.1: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언어를 더 잘 배울까? ●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제 2 언어로서의 외국어 학습과 제2외국어 학습을 구분해야 한다.

제 2 언어로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을 말한다.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언어를 쉽게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빨리 배우게 된다. 어린 나이에 (6세 또는 7 세 이전에) 제 2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학습자는 그 언어의 원어민 발음을 훨씬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이와는 아주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보통은 언어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지 않다. 외국어를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으며, 학습동기는 매우 높아야 하며, 외국어 학습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어른들에게는 이점이 있다. 즉, 장기 목표를 설정하거나 학습을 꾸준히 하는 것을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며, 다른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미 연마한 기술과 전략을 갖춘 경우가 종종 있다. 성인은 또한 학습한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고 학업을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말하기를 통한 언어 학습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가장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용한 어구들과 문장들을 암기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어구와 문장은 인사말, 공손한 표현, 쇼핑 및 여기 저기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표현, 숫자, 식당을 이용할 때 필요한 표현, 자신이나 자신의 일 및 외국에 가야 할 이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 때 쓸 수 있

는 표현들이 포함된 생존어휘에서 추출해야 한다.

● 활동 4.1: 문장 또는 대화 암기하기 ●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작은 카드에 써넣고 모국어 번역본을 뒷면에 쓴다. 암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어구와 문장의 발음에 대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다.

암기할 때에는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먼저 보고 그에 대한 외국어 표현을 기억해보라. 단어카드 사용 방법은 활동 5.1에 소개되어 있다.

표현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표 8.5에는 암기해야 할 짧은 대화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암기하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며 머리에 오래 남을 뿐 아니라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 그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언어 능숙도가 향상되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연습할 수 있는 회화클럽(가능하다면 한두 명의 원어민을 포함하는 것이 좋음)을 조직하는 것이 좋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이

처할 수도 있는 다양한 상황의 목록을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간단한 상황극을 해볼 수도 있다. 각 상황은 한 번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연습해야 하며, 다음 모임에서는 시간 간격을 넓혀가면서 다시 한두 번 더 연습해야 한다.

평범한 대화에서는 비록 외국어 학습자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원어민 화자는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의 표현에 대해 올바른 피드백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를 들어 특정 소리의 발음이나 특정 문법의 사용과 같이 교정 받아야 할 영역을 미리 정하여 교정 활동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활동 4.2: 역할극 ●

역할극은 두세 명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 예를 들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물건을 사거나, 길을 찾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등의 평범한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연기를 통해 보여준다.

한 쌍 또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상황에 맞는 연기를 한다. 역할극이 끝날 때마다 각자는 방금 한 활동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어서 바로 수정한 것을 추가하면서 역할극을 다시 해야

한다. 그 직후에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같은 역할극을 이후의 모임에서 두세 차례 더 해야 한다.

주제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역할극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 활동 4.3: 준비하여 말하기 ●

쓰고 암기하고 확인한 후 연습할 수 있는 짧은 대화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 취미, 외국에서 했던 재미있는 일, 가족,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서 볼만한 것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만한 주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유용한 활동으로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마음속으로 대화해보는 것이 있다. 이 활동은 대체로 조용히 이루어지지만 큰소리로 해보는 것도 좋다 (공공 장소는 피해야!). 활동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실제 사람, 아마도 영화 배우와의 대화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하기 연습을 하되 여러분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혼자서 공부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가 가장 어렵다. 원어민이나 다른 학습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스카이프(Skype)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접촉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글쓰기를 통한 언어 학습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어학코스에는 세가지 작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글쓰기는 필요할 경우 사전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쓰기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글쓰기는 유창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가장 유용한 활동으로는 ‘10분 글쓰기’가 있다 (활동 6.3). 세 번째 종류의 글쓰기(활동 8.1: 쟁점일지)는 신중하게 설정된 조건 하에서 글쓰기의 양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이며, 피드백을 받는 것이 유용 할지라도 표현에 대한 피드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활동 4.4: 읽기 및 쓰기

여러분 자신이 쓰는 글에 많은 지식을 포함시킨다면 글쓰기는 더 쉬워진다. 여러분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주제에 관해 모국어와 외국어로 읽은 다음, 자신이 읽은 것을 모두 이용하여 그 주제에 관해 글을 써보라.

단지 읽고 쓰기만 하지 말고 들은 후에 쓰거나 보고 들은 후에 써볼 수도 있다 (예, 영화를 보고 난 후 글쓰기). (비슷한 종류의 활동으로는 활동 7.1: 기술 연계 활동이 있다.)

‘시간-과업능숙도 비례원리(time-on-task principle)’에 따르면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길수록 더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네 가지 기술은 많은 양의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향상된다. 특정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법 지식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선 두 장(chapters)에서 우리는 사용(use)을 통한 언어 학습방법을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균형 잡힌 코스의 네 가닥 원리 중 세 번째를 구성하는 다른 종류의 학습, 즉 의도적인 학습을 살펴볼 것이다.

제5장

학습 균형 - 언어 기능별 학습

‘의도적인 학습’ 설계

다중어구 학습

관련 단어 학습

발음 학습

문법 학습

어휘 학습

제5장

학습 균형 - 언어 기능별 학습

의도적인 학습은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므로 이러한 학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의도적인 학습에는 교사의 지도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학습자도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도적인 학습’ 설계

여러분은 의도적인 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의도적 학습활동은 단어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활동 5.1 참조). 단어 카드를 사용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휘를 배워야 하며, 이전에 학습한 어휘를 계속하여 복습하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하다. 일부 교사들은 모든 어휘 학습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전략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언어중심 입력, 언어중심 출력, 유창성 개발을 통해 문맥 속에서 어휘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어카드 사용을 통해 문맥이 없는 가운데서 의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학습은 매우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어카드 학습에는 모국어 번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사고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언어 학습의 시작과 중간 단계에서는 모국어와 외국어가 불가피하게 학습자의 머리 속에 함께 저장된다. 두 언어 (bilingual) 단어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매우 효과적인 의도적 학습 전략이다.

단어카드 학습뿐 아니라 단어와 문법을 배우기 위해 컨코던서 (concordancer)를 사용해야 하며 (제2 장 참조) 구술본과 필사본 (spoken and written forms)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받아쓰기, 베껴

쓰기, 시간 지체 후 베껴 쓰기(delayed copying), 반복 말하기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단어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킨들(Kindle)과 같은 전자리더기(electronic reader)를 사용하여 정독을 할 필요도 있다.

● 활동 5.1: 단어카드 ●

단어카드를 사용하여 어휘를 배우는 것은 단어를 배우기 위한 한 걸음에 불과하다. 단어카드 사용은 의도적인 학습 전략에 속하며 어학코스의 언어중심 학습 갈래에 적합하다.

1. 작은 카드의 한쪽 면에 배울 단어를 쓰고 다른 쪽 면에는 번역본을 쓴다. 이렇게 하면 처음 접하고 난 이후에 단어를 기억해볼 수 있다. 기억할 때마다 단어의 형태와 그 의미의 관계가 강화된다. 반면, 배울 단어와 번역본을 함께 보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 처음에는 약 15 개에서 20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작은 카드 묶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어려운 단어는 작은 카드 묶음 속에서 더 많이 반복되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이 쉽게 느껴지면, 카드 묶음을 좀더 크게 해도 좋다. 카드를 함께 보관하고 한 번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려면 50장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3. 반복 학습 간에 시간 간격을 둔다. 가장 좋은 간격은 카드를 처음 보고 나서 몇 분 후에 카드를 훑어 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한 시간 정도 후, 다음날, 일주일 후, 그리고 나서 2 주 후 카드를 다시 본다. 이 간격은 한 시간 이내에 반복을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반복에 투자한 시간의 합계는 같을 수 있지만 결과는 다르다. 간격을 두어 반복하면 학습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4. 배우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 키워드 기법(keyword technique, 노트 5.1 참조)과 같은 처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언어 맥락과 상황 맥락 속에서 단어를 생각해보라. 가능하다면 단어를 분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눈다. 분리된 단어의 한 부분으로 의미를 연상할 수 있으면, 그 단어는 그만큼 쉽게 기억할 수 있다.
5. 철자가 비슷하거나 또는 의미가 관련된 단어들을 동일한 카드 묶음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모든 요일을 동시에 배워서 안됨을 의미한다. 또한 달(months), 수, 반의어, 동의어, 동일한 낱말 세트에 포함되는 예를 들면 의류 품목과 같은 단어들, 과일 이름, 신체 부위 및 부엌에 있는 물건들과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카드 묶음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단어들은 서로 간섭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어 학습은 그만

큼 더 어렵게 된다.

6. 묶음에 들어 있는 단어 순서를 지속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단어의 의미가 동일 묶음에 들어 있는 다음 단어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배우고자 하는 단어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8. 카드에 배우고자 하는 단어가 포함된 어구나 문장을 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특히 동사의 경우에 적합하다. 단어들 중에는 어구의 형태로 매우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 노트 5.1: 키워드 기법이란 무엇인가? ●

키워드 기법은 어휘를 기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키워드 기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가 있다.

제1 단계: L2(제2언어) 단어 또는 L2 단어의 시작 부분과 같은 소리를 내는 L1(모국어) (또는 알고 있는 다른 언어)로 생각한다. 이것이 학습자 자신의 키워드가 된다.

제2 단계: L2 단어의 의미 및 키워드의 의미와 관련된 이미지를 생각해보라. 실제로 이 이미지를 마음 속에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키워드 기법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1) 새로운 L2단어
- (2) 키워드
- (3) L2 단어와 키워드를 포함하는 이미지
- (4) L2 단어의 의미

다음 예에서 네 부분은 기법의 네 부분과 일치하도록 번호가 매겨져 있다. 여러분 자신이 인도네시아인이고



(1) parrot(앵무새)의 (4) 의미를 기억하고 싶다면 “ditch”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 단어인 (2) parit를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3) 도랑에 있는 앵무새를 상상해 보라.

따라서 키워드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parit-parrot과 같은 형태 링크와 parrot-ditch와 같은 의미 링크를 제공한다. 여러분이 태국인이고 (1) 영어 낱말인 council(평의회)

를 배우고 싶다면 “생 쌀(uncooked rice)”을 의미하는 태국어 이
라 $khâaw\ sǎn$ 는 표현을 (2)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3) council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서 생 쌀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면 (4) council의 의미
를 형태인 council에 연결 지을 수 있다.

키워드 기법은 단어의 여러 기능을 처리하게 하며 그 처리 방
식은 있는 그대로 반복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유일한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
의 상상력일 뿐이다! 키워드는 배워야 할 외국어와 소리가 정확
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그 낱말과 형태가 똑같지 않아도 된
다. 일반적으로 키워드의 형태가 외국 단어의 시작과 같으면 그
것으로 충분하다. 연구에 의하면 키워드 기법은 일반적으로 다
른 의도적 학습활동보다 학습효과가 25 %나 높다고 한다.

폴 네이션의「어휘 학습: 전략과 기술」(Nation, I.S.P. [2008], *Teaching Vocabulary: Strategies and Techniques*. Boston: Heinle Cengage Learning)

다중어구 학습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단어와 함께 어구를 만든다. 이러한 어구의 의미는 대부분은 거기에 포함된 단어들(예, *next week*, *six o'clock*, *strong tea*, *in a minute*)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구들 중에는 어구의 의미와 거기에 포함된 낱말 사이의 관계가 그다지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관련성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일석이조),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희망이 보인다), *you know*(삽입구로 쓰이며, ‘그,’ ‘저,’ ‘그래’), *for instance* (예를 들어), *think about*(~에 대해 생각해 보다) 등이 그런 예들이다. 물론 그 수는 많지 않지만, 부분 부분의 의미가 전체의 의미와 명백한 관련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at all*(전혀), *of course*(물론), *as well*(~도 또한), *by and large*(대체로), *raining cats and dogs*(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가 그런 예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어구를 설명하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idioms(관용어), collocations(연어), multiword units(다중어), figuratives(비유적 표현), lexical bundles(어휘 뭉치)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어구이건, 중요한 것은 어구 자체에 의도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를 보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 어구를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부분의 의미가 전체의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 본다.
비유적 의미가 있는 어구와 절(clauses)의 경우 축어적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gave me the green light*에는 “초록 신호를 보다”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다. 비유적 의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허가를 얻다”이다.
2. 어구의 형태를 보라. 영어 어구의 약 20%는 두운법(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을 사용하는데, *leading light*, *baby boom*, *head held high* 또는 *blue moon* 처럼 유사 모음으로 연결되거나 *when the cat's away*이나 *the mice will play* 처럼 각운 되거나 *by and by*처럼 반복되거나 *last gasp*처럼 부분적으로만 각운 되는 경우들도 있다.
3. 어구의 유래를 생각하고 알아보라. 예를 들어 *toe the line*(규칙을 준수하다)과 *cut and run*(겁먹고 퇴각하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라.

단어의 출현 빈도가 각각 다른 것처럼 어구의 출현빈도도 다르다. 일부 어구는 매우 빈번하게 쓰이지만, 그다지 빈번하게 쓰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노트 2.1: 모든 단어가 똑같이 중요가?). 키큐던서를 사용하여 어구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2 장 참조).

관련 단어 학습

관련 단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 동의어 (*embarrass-humiliate, prevent-protect*), 반의어 (*hot-cold, long-short*), 어휘 세트 (lexical set: 요일, 색, 과일 이름, 의류, 신체의 여러 부분)은 함께 배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들을 함께 배우는 것은 역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습을 50 %에서 100 %까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00% 더 어렵다는 것은 무의미한 단어를 배우는 것에 비해 이 단어를 배우는 데 두 배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관련 단어가 명사인 경우 모양이 서로 비슷한 *apple-orange* 어휘 세트가 모양이 다른 *banana-orange* 어휘 세트보다 배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 간의 관계는 단어들이 어떤 한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예, *frog, pond, green, slimy, hop, croak*)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단어가 같은 어휘 집합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야기 책에 나온 단어를 단어카드에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서로 비슷한 단어들을 학습할 때에는 단어 학습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이들 단어들이 형태상으로 유사할 경우 간섭이 발생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우리는 *Tuesday*와 *Thursday*를 *Tuesday*와 *Sunday*보다 더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두 낱말이 같은 철자로 시작하고 모두 “s”와 “day”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간섭을 줄이는 방법은 서로 간섭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각기 다른 시간에 배우는 것이다.

● 활동 5.2: 베껴 쓰기 ●

베껴 쓰기는 관련 주제에 관한 짧은 음성언어를 녹음하고 스크립트를 만들려고 애쓰면서 여러 번 재생하는 과정을 말한다. 텍스트의 길이는 약 100 단어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 자신이 받아쓴 것을 확인하고 교정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확보할 수 있는 음성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 이는 텍스트를 다시 들을 때 재생을 일시 중지하고 텍스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활동 5.3: 정독 ●

정독은 문맥 속에서 언어기능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정독에는 사전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게 읽어가는 과정이 수반된다. 정독의 목표는 자신이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점차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다. 정독 활동은 혼자서 할 수도 있으며 또는 다른 학습자의 도움을 받거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텍스트의 일부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번역을 해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혼자서 공부하는 학습자의 경우, 정독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반복할 때마다 텍스트의 여러 측면에 유의하며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읽을 때에는 텍스트에서 마주치는 모르는 어휘와 텍스트의 의미 파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두 번째로 읽을 때에는 나중에 말하기 또는 쓰기에서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다중 어휘(multiword units)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읽기에서는 전치사나 관사와 같이 텍스트에 쓰인 일부 기능어(function words)의 사용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러한 집중적이고도 반복적인 읽기는 주요 초점이 글의 의미, 따라서 대체로 내용어(content words)에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에서야 비로써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이런 주의를 언어 학습에 매우 중요하다. 초점을 바꿔가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녹화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할 때와 같이 듣기를 할 때도 필요하다.

● 활동 5.4: 시차를 두고 기억하여 쓰기 ●

200단어 길이(약 20 행) 정도의 유용하고 관련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라. 필요한 경우 사전의 도움을 받으며 읽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텍스트에서 처음 4-5개의 단어를 보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어서 텍스트를 다시 보지 않고 종이 위에 그 단어들을 기억하여 쓴다. 텍스트를 기억하여 쓰면서 점점 더 긴 표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활동은 더욱더 긴 어구(phrases)를 기억하고 있다가 써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활동은 필기 기술과 어구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 활동 5.5: 철자 연습 ●

배우는 언어가 모국어와는 사뭇 다른 문자체계(writing system)나 철자법을 사용하는 경우, 문자체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연습하려는 어구를 줄이 그려진 노트의 왼쪽 하단에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문자체계가 (중국어와 달리) 알파벳과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각 단어의 끝부분 뒤에 그 단어의 첫 글자를 써넣어야 한다.

rhythm r

agree a

common c

첫 번째 글자만 볼 수 있도록 종이를 접은 다음 그 단어를 기억해서 써본다.

rhythm

rhythm

agree

agree

common

common

종이를 펼치고 단어가 맞는지 확인하라.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다시 쓰고 종이를 접은 다음 기억하며 다시 써본다. 각 줄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발음 학습

언어를 분명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습 목표이다. 발음이 명확하면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으며, 원어민 또한 여러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언어 지식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듣고(의미중심 입력), 말하고(의미중심 출력), 발음(언어중심 학습)을 공부하고 쉬우면서도 익숙한 주제에 관해 말하고 듣는 데 능숙해질 수 있는 (유창성 개발) 기회가 있다면 도움이 된다. 어린 아이들은 외국어의 발음 능력 개발을 위한 언어중심 학습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아이

들은 ‘언어중심의 세 가닥(three meaning-focused strands)’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습자는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어민과 같이 유창하게 발음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나이가 많은 학습자는 대부분 추가적인 노력으로 발음을 개선할 수는 있어도 결국 그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발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든 학습자의 발음은 언어 사용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와 발음에 대한 남다른 연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자의 경우 the, this, there, that의 첫 소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의 구분, 파열음인지 마찰음인지의 구분, 입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는지 등을 알고 있으면 해당 소리의 발음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The에 있는 소리는 성대를 사용해서 내는 유성음이면서 윗니와 혀끝을 사용하여 내는 마찰음이다.

따로 떨어진 음절에서 어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러한 소리가 나타나는 아주 흔히 쓰이는 단어로 연습해야 하며 어구 및 짧은 문장으로 연습해야 한다. 그러한 소리를 발음하기 쉽지 않은 단어로 연습하는 것은 종종 원어민에게 조차 너무 어려운 일이므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발음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춘 교사가 있으면 개별적인 소리를 배울 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디오의 말하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오디오 편집기를 사용하여 단어 및 구를 연습할 수 있으며 오데서티(Audacity)와 같이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영화(movie clips)를 보면서 발음을 반복적으로 따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발음 교정 작업을 나중에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어 학습 초기에 발음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문법 학습

이 책의 대부분은 네 가닥 원리(the principle of the four strand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네 가닥 원리에 의하면, 학습 기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입력(input)을 통한 학습에 수업시간의 약 1/4을 배정하고, 출력(output)을 통한 학습에 수업시간의 약 1/4을 배정하며, 의도적인 학습에 수업시간의 약 1/4을 배정하고, 유창성을 개발하기 위한 쉬운 입출력 활동에 수업시간의 약 1/4을 배정해야 한다. 네 가닥 원리는 매우 강력한 원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문법을 배우는가? 어휘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다른 언어

로 말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등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문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데에서 한 예를 찾아 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법 학습을 품사의 이름을 익히고, 문법 구조를 설명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의도적인 학습을 하는 방법일 뿐이다. 문법 학습은 대체로 언어의 사용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듣고 읽음으로써 문법을 배울 수 있다. 읽기와 듣기에서 문법 구조를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특별히 의도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해당 문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문법 학습의 많은 부분이 어구(phrases)를 배우는 과정, 즉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함께 어울리는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많이 듣고 읽을수록 우리의 문법 지식도 늘어나게 된다.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문법을 배울 수도 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문법 부분이 취약한지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취약한 점을 인지하게 되면 얘기를 듣거나 글을 읽을 때 바로 그러한 부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즉,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듣기와 읽기를 통해 학습 기회가 증가될 수 있다. 우리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시험 삼아 해볼 때도 문법을 배울 수 있다. 즉, 통용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구문

과 구조를 사용해본다. 이와 같은 시도에는 종종 모국어의 패턴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종종 잘못된 표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학습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고 유용한 어구와 문장을 외우면서 문법을 의식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문법 학습에 투자되는 시간은 언어 학습 시간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용한 문법 학습활동에는 할 수 있다면 대체표(substitution tables)를 사용하는 것, 말하기 및 쓰기에 적절한 피드백(오류 수정)을 받는 것, 받아쓰기 활동을 수행하는 것, 중요한 문법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간단한 설명을 보거나 듣는 것도 있다.

언어중심 입력과 언어중심 출력을 통해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유창성 개발 활동을 통해서도 문법을 부수적으로 배우게 된다. 유창성 개발 활동은 매우 쉬우면서도 익숙한 자료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유창성 개발 활동은 많은 양의 입출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는 언어에 그만큼 많이 노출된다. 이런 점에서 유창성 개발 활동은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문법 지식을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어휘 학습

네 가닥 원리는 문법 학습과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기술 습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휘 학습에 적용된다. 우리는 언어중심 입력, 언어중심 출력, 언어중심 학습 및 유창성 개발을 통해 어휘를 배워야 한다. 의미중심 입력, 언어중심 출력, 유창성 개발 활동은 모두 메시지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활동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의 능숙도에 적합한 난이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의도적 어휘 학습에는 모르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것(바람직하게는 두 개의 언어로 된 카드 사용)과 정독(intensive reading)을 할 때처럼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사전을 사용하여 어휘를 의도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말을 하거나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과 문맥에서 추측하기, 단어카드 사용하기, 단어를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사전 사용하기와 같은 전략들을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다.

우리는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네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네 가닥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중 세 가닥에는 의사소통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학습의 주요 방법상의 차이점은 입력 (듣기 및 읽기) 초점이나 또는 출력 (말하기 및 쓰기) 초점이나 그리고 특히 네 가지 언어 기술(듣기, 읽

기, 말하기, 쓰기) 각각을 위한 의도적인 학습방법에 초점을 두느냐에 있다.

의도적인 학습활동은 전형적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방법을 고민할 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활동이다. 그렇지만 의도적인 학습은 균형 잡힌 어학코스의 한 가닥일 뿐이므로 코스에 할당된 전체 시간의 1/4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 가닥인 유창성 개발을 살펴본다.

제6장

학습 균형 - 유창성 개발

듣기 유창성

말하기 유창성

읽기 유창성

쓰기 유창성

제6장

학습 균형 - 유창성 개발



지금까지 학습 기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제3 장에서는 입력(듣기와 읽기)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제4 장에서는 출력(말하기와 쓰기)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의도적인 학습에 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창성 개발(fluency development)’이라는 네 번째 가닥을 살펴본다.

유창성이라 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시작하여 모든 언어 능숙도 단계에서 이미 배운 것에 유창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숫자를 배웠으면 소리 형태로 만나게 되는 숫자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에 들어갔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들어 알 수 있다.

유창성에 대해 잘 알려진 정의가 몇 가지 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언어에 유창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언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유창성과는 다른 것이다. 유창성의 또 다른 의미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어구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창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 장에서 말하는 유창성이란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속도만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창성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의가 되겠지만 매우 중요한 언어 학습 목표이다.

유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창성 활동에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1. 모르는 어휘나 모르는 문법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쉬운면서도 친숙한 자료를 사용한다.
2.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수반된다.
3. 많은 양의 연습이 필요하다.
4.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술에 있어서 유창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겠다.

듣기 유창성

듣기 유창성은 속도를 다양하게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디지털 레코더나 윈도우 플래시 플레이어(Windows Flash Player)와 같이 속도 제어 기능이 있는 재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다 (재생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기능 향상(Enhancements) 아래 부분을 보라). 문자 형태로 제공되는 텍스트를 녹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텍스트

의 길이는 약 200-300 단어 정도가 되어야 하며 더 길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문자언어를 자세히 공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문자언어를 보면서 텍스트를 듣되 재생 속도를 느리게 설정해야 한다. 이후 며칠 동안 재생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면 결국 정상에 가까운 속도로 텍스트를 듣게 된다.

자막이 있는 단편 영화를 사용하면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반복 듣기를 할 수 있다. 자료가 반복되면 더 쉽게 느껴지고 연습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반복은 유창성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 활동 6.1: 반복 듣기 ●

누군가를 시켜 6, 3, 8, 1, 7, 10, 2, 9, 4, 5, 3, 10, 3, 6과 같이 임의의 순서로 1에서 10까지 숫자를 외국어로 기록하라. 각 번호는 순서를 바꾸면서 여기 저기서 여러 번 나타나도록 한다. 그러면 일정치 않은 순서로 동일한 번호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종이 한 장에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녹음을 들으면서 듣게 되는 번호를 가리키라. 느린 속도로 쉽게 할 수 있으면 속도를 높이고 다시 해야 한다. 레코더에서 흘러 나오는 숫자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계속하여 한 번에 집중적으로 듣기보다는 며칠에 걸쳐 연습을 나누어 하는 것이 좋다.

이 활동에는 반복과 속도 높이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숫자를 이해하는 속도를 신속하게 높일 수 있다. 이 활동은 또한 요일, 달, 인사말, 음식 이름과 기타 많은 것들을 학습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말하기 유창성

말하기 유창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말하기 자료를 반복적으로 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활동으로는 4/3/2 활동이 있다.

활동 6.2: 4/3/2

4/3/2 활동에서는 4분 동안 대화 상대방에게 아주 쉬운 주제로 이야기한다. 상대방은 중간에 말을 끊어서도 안 되며 질문을 해서도 안 된다. 그저 주의 깊게 듣기만 해야 한다. 4분 말하기가 끝나면 정확하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상대를 바꾸어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는 3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마쳐야 한다. 이 때도 상대방은 말을 방해하지 않고 경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다시 바꿔 똑같은 주제로 말을 하되 2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해야 한다.

4/3/2 활동에는 유창성 발달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쉬운 주제 (주제가 화자에게 매우 익숙해야 함), (시간 단축으로 인해)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4 + 3 + 2 분이 라는) 연습 양, (세 명의 다른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말하기가 그것이다. 능숙도가 높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4/3/2 대신에 3/2/1½을 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간을 점차 줄여가면서 말하는 활동은 유창성 개발에 상당히 효과적이며, 반복은 정확성과 문장을 복잡하게 구성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끼치는 효과가 더 크다.

혼자서 언어를 배우는 경우 4/3/2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듣는 사람이 없이 그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읽기 유창성

읽기 유창성이란 분당 약 250 단어의 속도로 조용히 읽으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쉬우면서도 친숙한 자료를 많이 읽을 때 읽기 유창성은 발전한다. 영어에는 어휘를 통제하여 예를 들면 1,000 단어, 2,000 단어 수준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려운 문법 구조도 배제한 텍스트를 사용하는 속독과정(소니아 밀레 <Sonia Millett>의 웹 사이트 참조)이 있다 (활동 6.4 참조). 이들 텍스트는 모두 길이가 같으며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들어있다. 한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자신의 독서 시간을 기록하고 소요 시간과 이해력 점수를 그래프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20 개의 텍스트를 읽되, 매주 2-3개 정도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읽기 속도를 최소 5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 속도를 두 배까지 늘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속독과정은 초고속 읽기 능력으로 발전하지는 못해도 원어민 속도에 근접하는 분당 약 250 단어 정도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읽기 속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매우 쉬운 자료를 읽는 것이다. 즉, 배우는 언어에 수준별 도서가 있을 경우 (불행히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는 많지 않음) 어휘가 엄격히 통제된 매우 쉬운 수준의 텍스트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쉬운 텍스트가 없는 경우 같은 자료를 반복하여 읽어도 읽기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

활동 6.3: 반복 읽기

반복 읽기는 읽기 속도를 높이면서 동일한 자료를 적어도 세 번씩 읽는 것을 말한다. 큰 소리로 읽거나 조용히 읽으면서 반복적인 읽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각 읽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반복 읽기를 큰 소리로 수행한다면 적당한 목표는 분당 약 150 단어를 읽는 것이다. 반면, 조용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목표를 분당 약 250 단어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반복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읽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읽기 유창성에는 이해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활동 6.4: 속독

속독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동등한 난이도의 20 개의 단락이 포함되며, 각 단락 뒤에는 해당 단락의 내용을 묻는 이해력 문제가 선다형(multiple-choice)으로 이어진다. 각 단락은 어휘 통제하에 쓰여지며 따라서 학습자가 모르는 어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락을 선택하고 시간을 기록한 후 타이머를 작동시킨 다음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조용히 읽는다. 단락의 끝

부분에 이르면 그 단락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을 기록한 다음 단락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해력 측정 문제를 푼다. 문제를 풀 때에는 텍스트를 다시 보면 안 된다.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정답을 보고 채점한다. 단락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표를 사용하여 분당 단어수로 변환하고 그 속도를 속도 그래프에 기록하며 자신의 독해력 점수는 독해력 그래프에 기록한다. 이 모든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분 정도이다.

며칠 후에 다른 텍스트를 읽고 속도와 이해력을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20개의 단락을 모두 읽어야 한다.

이와 같은 속독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독서 속도를 50% 향상시킬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속도를 두 배로 높일 수도 있다. 속독과정의 목표는 분당 약 250 단어의 속도로 읽으면서 10 점 만점에 7-8점 정도의 독해력 점수를 얻는 것이다.

쓰기 유창성

글쓰기 유창성은 학습하는 언어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특히 중요하다. 쓰기 유창성을 개발하는데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법으

로는 ‘10분 글쓰기’와 ‘반복 쓰기’ 두 개가 있다.

● 활동 6.5: 10 분 글쓰기 ●

10 분 동안 글쓰기를 위해 흥미롭고도 쉽게 쓸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시간을 측정하는 디지털 앱(application)을 사용하여 정확히 10 분 동안 글을 쓰되, 가능한 한 많이 써야 한다. 정확히 10 분이 지나면 사용한 단어의 수를 세어 그래프에 그 수를 입력한다. 10분 글쓰기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는 것이 좋다.

10분 글쓰기는 유창성 개발 활동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더 많은 것을 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활동은 교사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다. 다른 유창성 개발 활동과 마찬가지로 오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오류에 신경 쓰다 보면 글쓰기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 활동 6.6: 반복 글쓰기 ●

반복 글쓰기는 특히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유용하다. 또한 매우 자주 수행해야 하는 글쓰기 작업에도 도움이 된다.

반복 글쓰기에는 글을 쓰고, 내용을 수정하며 확인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둔 후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써보는 과정이 포함된다. 글쓰기를 마치면 원본과 대조하면서 내용을 확인한다 (유사한 활동으로는 **활동 5.2: 시차를 두고 베껴쓰기**가 있음). 같은 글을 최소 두세 번은 반복해야 마지막 단계에서 유창해질 수 있다.

능숙도가 매우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게서 유창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유용한 어구와 문장을 암기시키는 것이다 (**활동 4.1: 문장 또는 대화 암기하기** 참조). 일단 암기를 하면 표현이 정확해질 수 있고 연습을 거치면 유창해질 수 있다. 기억해야 되는 매우 유용한 문장과 어구는 생존어휘에 포함된 것들이다. 그러나 해당 언어를 배우는 이유와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될 시기를 우선 고려하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용한 문장과 어구를 찾아내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 능숙도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은 배운 것을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 원칙 목록의 2 번에 해당하는 네 가닥 원리 (the principle of four strands)를 다루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적용하라’라는 제3의 원칙을 살펴보겠다.

제7장

학습 조건 활용

학습 조건

학습 조건 적용

교사의 도움

교사의 임무

제7장

학습 조건 활용

이 장의 목적은 언어 학습에 권장되는 많은 활동의 학습 조건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여 학습활동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 활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 조건

많이 반복하면 할수록 더 잘 배울 수 있다. 반복에는 시간 간격을 두면 그 효과가 더욱 좋다. 즉, 반복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차를 두고 반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와 친숙해지면 질수록 그 단어를 반복해서 보는 간격은 몇 주 또는 몇 달로 늘어나야 한다. 잘 설계된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이라면 반복의 간격을 점차 넓혀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에도 반복 간격을 넓혀가는 경향이 있다.

각 반복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으면 반복 효과는 강화된다.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것은 ‘기억 되살리기’이다. 이 방법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체의 이름을 들은 후, 몇 분 후에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성공적인 기억 되살리기를 통해 단어 형태와 단어 의미 간의 연결이 강화된다. 기억 되살리기가 성공적일수록 학습효과는 그만큼 높아진다. 단어와 그 단어의 의미를 함께 볼 경우, 이는 해당 의미나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 되살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으려 할 때 그 단어가 이전에 이미 찾아보았던 단어임을 알고 있다면 몇 초 동안 그 의미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단어카드 또는 플래시카드 프로그램 사용하기를 어휘의 의도적인 학습방법으로 채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기법을

동원하면 기억 되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단어의 형태를 보고 의미를 알아 내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의미를 보고 단어 형태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공적인 학습에 필요한 반복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8 회는 되어야 하고 그 이상이면 그만큼 더 좋다.

반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 또는 형태로 마주치게 하는 것이다. ‘다양하게 마주친다’는 것은 읽거나 듣기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형태, 다른 맥락, 다른 의미로 같은 단어를 다시 만나는 것을 말한다.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단어의 굴절어미가 단수에서 복수어미 형태로 바뀌거나 현재시제에서 과거시제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맥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다른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거나 이전에 마주친 적이 있는 다른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cry*라는 단어를 “The child cried and cried,”에서 처음 만나고, 다음에 그 단어를 “Stop there, he cried,”에서와 같이 전달동사(a reporting verb)로 마주칠 수도 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와는 여전히 관련되어 있으나 다소간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sweet*라는 낱말을 처음에는 “취향(taste)”의 의미로 만나고 나중에는 “사람의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그 정도가 다양하며, 다양한 조건에서 마주치게 되는 단어는 암기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 우리

는 듣거나 읽기 과정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단어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단어의 다양한 용도(varied use)도 말하기와 쓰기에 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낱말이 다양하게 쓰이면 그 낱말을 기억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같은 단어를 다양한 용도로 마주치는 것이 다양한 맥락에서 마주치는 것보다 암기 효과는 더 강력하다.

지금까지 반복(repetition), 기억 되살리기(retrieval), 다양한 상황에서 접하기(varied meetings), 다양한 용도(varied use)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학습자에게 국한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시각적 이미지를 언어 항목 및 언어 사용과 연관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필요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이러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은 시각적인 연상(visual associations)으로 이어져서 아마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의 한 이론인 이중 코딩이론(dual coding theory)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처리된 것들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코딩된 것보다 더 잘 기억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림으로 말미암아 주의력이 분산될 경우 배워야 할 언어 항목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

의도적인 주의 또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이기도 하다.

학습 조건 적용

반복은 학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활동을 반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반복에는 가능하면 기억 되살리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습에 반복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있다.

1. 이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으라.
2. 이전에 읽은 책을 음성언어로 들어보라. 전자책 형식으로 된 경우 TTS (text-to-speech)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Project Gutenberg)와 같은 일부 웹 사이트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를 문자 파일과 음성 파일로 제공한다.
3. 기술 연계 활동(linked skills activities)을 수행한다 (활동 7.1 참조). 즉, 읽은 것에 대해 글을 써보고,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4. 며칠이나 몇 주 전에 했던 일들과 관련한 활동을 한다.

● 활동 7.1: 기술 연계 활동 (Linked Skills Activities) ●

기술 연계 활동은 언어 학습을 위한 가장 유용한 활동 중 하나이다. 이것은 같은 내용의 수업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되, 예를 들어 한 구절을 읽은 다음 그 구절을 듣고 이어서 그 구절

에 대해 글을 써보는 식으로 세 기능을 연계하는 활동이다. 동일한 자료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활동은 쉬워지므로 기술 연계 활동의 세 번째 부분에 이르게 되면, 이 세 번째 부분은 유창성 개발 활동의 특징을 띠게 된다.

네 가지 기술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가 포함되며, 기술 연계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기술 중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 연계 활동의 성공 여부는 활동의 세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 자료가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달려 있다.

교사의 도움

언어를 혼자서 배울 수는 있지만 교사가 있으면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술이 연계된 어떤 활동들이 의도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질 때 개인 교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 보고자 한다.

듣기 활동을 위해 교사는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자료를 만든다. 따라서 학습자는 훌륭한 발음으로 녹음된 듣기 자료를 들으면서 해

당 언어의 여러 특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숫자, 어구, 유용한 문장으로 유창성을 개발하고 신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활동 4.1: 문장 또는 대화 암기하기 참조). 교사는 또한 언어중심의 듣기와 말하기 실습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매우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화가 이전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말하기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종종 있다.

대화 연습뿐만 아니라 말하기의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쟁점일지(활동 8.1)에 관해 교사와 의논할 수 있고, 준비하여 말하기(활동 4.3)에 쓰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발음도 연습할 수 있으며, 유창한 초급 회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암기해야 할 유용한 어구 및 문장들을 교사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4/3/2 유창성 개발 활동에서 개인 교사를 파트너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의 본질은 연습하려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기억해 내는 것이며, 비록 동일한 대상인 개인 교사에게 동일한 자료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긴 해도 교사는 활동 후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처음 말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읽기의 경우에도 교사는 정독(Activity 5.3)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학습자가 부딪칠 수 있는 읽기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글쓰기의 경우도 교사는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종종 써야 하는 중요한 글을 수정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수업 계획과 교수법 관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미중심 입력의 네 가닥(four strands), 즉 의미중심 입력과 의미중심 출력과 언어중심 학습과 유창성 개발을 통해 학습 기회를 균형 있게 얻고 싶다는 점을 교사에게 분명히 말함으로써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개인 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수업과정을 수강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적어도 수업의 일부라도 협의된 강의요목을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협의된 강의요목은 교사와 학습자가 수업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상호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협의된 강의요목을 생성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교사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과정을 가르치고 그 후에 학생들에게 그 기간 동안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화이트보드에 목록으로 적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학생들이 작성한 목록을 보면서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이미 확인했음을 인지시킨다. 이어서 학생들에게 이제는 서로 의논을 한 후 다음 주 또는 그 다음주까지 하고 싶은 활동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과 협의하

도록 요청한다. 교사가 화이트보드에 빈 시간표를 그려 넣으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빈 시간표가 제시되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교사는 다양한 제안을 학생들과 검토하여 확정된 후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수업에 협의된 활동을 실천한다. 협의된 활동이 끝날 무렵 학생들과 협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학급 활동과 내용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교사입장에서는 협의된 강의요목이 매우 유용한 피드백이 될 수도 있다.

협의된 강의요목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학습자가 언어를 배울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고 따라서 강의요목 협의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고도 전문적인 역할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모든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사 자신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환영하는 교사들도 많을 것이다.

교사의 임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네 가닥(four strands)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가장 유용한 자료를 학습의 각 단계에서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이는 학습하는 언어에 대해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이 경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교사에게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잘 조직하는 것이다. 네 가닥 원리에 따르면 학습 시간의 3/4은 의사소통 목적(즉 의미중심 입력, 의미중심 출력, 유창성 개발)의 언어를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준에서 사용하는 데 할애해야 한다. 교사는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활동들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 교사와 일대일로 학습할 경우 교사는 훌륭한 의사소통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언어중심 학습을 할 때 특히 도움이 된다. 교사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문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학생들은 교사를 따라 하게 된다. 교사는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어려운 단어 및 문법을 설명하며 적절한 언어 사용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용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대체로 훌륭한 교사는 언어를 배울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학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습자는 교사가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목표는 학습자가 언어 학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돕는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제8장에서는 지속적인 언어 학습을 가능케 하는 네 번째 원칙을 살펴본다.

제8장

동기 유지 및 학습 지속성

타 언어 학습에 필요한 시간

동기 유지

학습 지속성

제 8 장

동기 유지 및 학습 지속성



타 언어 습득에 필요한 시간

핼슬러(Pimsleur, 1980)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FSI(Foreign Service Institute)는 동 기관에서 가르치는 언어들을 수년에 걸쳐 숙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어온 어려움에 비추어 아래의 표8.1과 같이 “가장 쉬운” 그룹(그룹 1)으로부터 “가장 힘든” 그룹(그룹 4)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어려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쉬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능숙도에 도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표 8.2는 다섯 단계의 숙달 수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고 있다.

FSI 연구원은 3 년 동안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하여 다양한 교육 기간 후에 받은 평점에 주목했다. 표 8.3은 “쉬운” 언어와 “어려운” 언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수치는 주당 약 30시간의 높은 수준의 집중적인 교육을 토대로 얻어진 것이라고 핼슬러는 말한다. 특정 기간 내에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코스의 목표가 현실적인지 또는 변경되어야 하는지 또는 정규 수업시간 외의 학습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된다.

표 8.1: 영어 원어민을 위한 언어의 난이도

그룹 1 (가장 쉬운 언어)	그룹 2	그룹3	그룹 4 (가장 어려운 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불가리아어 버마어 그리스어 힌디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암하라어 캄보디아어 체코어 핀란드어 헤브라이어 헝가리어 라오스어 광택어 러시아어 세르보- 크로아 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베트남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표 8.2: 사교적 목적 및 사업 목적을 위한 언어 숙달 등급

1. 초급수준의 능숙도	일상적인 여행에 필요한 수준의 언어 능력이 며 최소한 갖춰야 할 예절을 만족시킬 수 있음.
2. 제한된 정도의 실무 이행 이 가능한 능숙도	일상적인 사회적 요구를 이행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제한적으로 나 마 이행할 수 있음.
3. 최소한의 전문적 수준의 능숙도	실용적, 사회적,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공 식적 비공식적인 대화에 효과적으로 참여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구조적 정확성 과 어휘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
4. 완전한 전문적 능숙도	일반적으로 전문성과 관련된 모든 수준에서 유창하고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
5. 원어민 또는 이중 언어 구사자 수준의 능숙도	교육을 받은 원어민 수준과 같은 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음.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따라서 영어 원어민 화자가 아랍어와 같이 어려운 언어를 집중 교육과정을 통해 제한된 실무 능력 수준까지 배우기를 원한다면 학습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4 주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표 8.3: “쉬운” 언어와 “어려운” 언어의 능숙도

“쉬운” 언어		“어려운” 언어	
지정된 언어교육 기간이 끝난 후 FSI 학생들이 보인 Group 1 언어 능숙도		지정된 언어교육 기간이 끝난 후 FSI 학생들이 보인 Group 2-4 언어 능숙도	
교육 기간	등급	교육 기간	등급
8 주 (240 시간)	1/1+	12 주 (360 시간)	1/1+
16 주 (480 시간)	2	24 주 (720 시간)	1+/2
24 주 (720 시간)	2+	44 주 (1320 시간)	2/2+/3

이 수치는 외국어를 배우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을 위한 것이다. 표에 들어있는 정보는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즉, 일본어가 영어 모국어 화자에게는 어려운 언어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어가 일본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어려운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언어의 원어민 화자들에게 외국어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한 언어의 문자체계는 다른 언어의 경우와 명백히 다를 수 있다. 표 8.1의 그

그룹 3과 그룹 4의 많은 언어는 영어 알파벳과는 다른 문자체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나 태국어와 같은 문자체계는 기호를 사용하여 온전한 단어를 나타내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알파벳을 사용한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발음에서 나타난다. 베트남어와 북경어 같은 언어는 낮은 성조(low tone), 높은 성조(high tone), 하강 성조(falling tone), 상승 성조(rising tone)와 같이 다양한 성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낱말은 적절한 성조로 발음해야 한다. 발음과 관련된 또 다른 차이점은 언어가 강세박자(stress-timed) 유형에 속하는지 아니면 음절박자(syllable-timed) 유형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영어는 강세와 강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같은 강세박자 언어에 속한다. 반면 인도네시아어는 각 음절에 대략 동등한 시간이 요구되는 음절박자 언어이다. 언어는 이처럼 다른 박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언어 화자(speaker)의 발음은 다른 언어의 화자에게 매우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언어간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밀접한가에 기인한다. 영어는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들 언어는 같은 단어군의 낱말(cognates)이라고 부르는 유사한 어휘를 많이 공유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어휘 학습은 훨씬 쉬워진다. 영어 어휘의 약 60%는 프랑스어,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오늘날 서로 다른 언어의 화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

아지고 영어의 높은 세계적 위상으로 인해 다른 언어의 화자들이 영어 단어를 차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렇게 차용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 음 단어들은 영어로부터 차용되어 일본어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apato*, *kisu*, *hamberga*, *warudo siris*. 이 낱말들의 의미를 짐작해보라. 각각 아파트, 낭만적인 키스, 햄버거, 월드 시리즈(야구에서)를 뜻한다.

낱말의 구성 방식은 언어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에는 접두사, 어간, 접미사를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다. 핀란드어와 헝가리어는 다양한 접미사를 사용하여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문법의 차이 역시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영어의 시제(예를 들어, 과거시제 및 현재시제), 단수와 복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관사(a, the)를 알아야 한다. 말레이어를 배우는 사람은 특정의 명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하고자 하면 그러한 명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류사(classifiers)의 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종이 6 장(six sheets of paper),” “성냥 3 개(three sticks of matches),” “소 4 마리(four animals of cows)”라는 표현을 예로 들자면, 밑줄 친 단어가 해당 명사에 알맞은 분류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모국어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뒤늦게 다른 언어를 제2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배우게 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결론적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큰 일이며, 잘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어 학습에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언어를 사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동기를 높게 유지하고 학습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제 동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동기 유지

동기 유지를 위해 여러분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언어 학습에 성공한 다른 학습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학습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언어 학습에 유용했는지에 관해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제 7 장에서 설명한 ‘조건’과 비교하면서 아래의 조언을 깊이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몇 개

의 단기 목표로 나누어 보는 것도 동기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주 20 개의 단어와 같이 특정 수의 단어를 배우는 것을 분명한 단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에 영어 원어민의 학습 속도에 가까운 1,000 단어까지 습득하게 된다. 이때 제 5 장에서 소개한 지침(guidelines)을 단어카드를 이용한 의도적 학습에 적용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단기 목표는 자기 수준에 알맞은 읽기를 매주 일정 양 지속하는 것이다.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주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하루에 20 분 정도)의 시간을 학습하면--특히 읽기 자료에 모르는 단어가 많지 않은 경우--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듣기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주별 성취목표를 설정하면 입력 양(the amount of input)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주별 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간단히 기록하고, 매주 활동을 마칠 때마다 이를 확인하면 동기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날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데 몇 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한다 해도 언어 학습 및 사용 활동을 매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스스로 세울 필요가 있다. 큰 일은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기 때문이다.

학습하는 언어 항목은 분명히 자신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언어를 사용하려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러한 모든 상황이 학습에서 다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8.4는 여러분이 고려해 볼 만한 일반적인 상황과 유용한 상황들을 예시하고 있다.

표 8.4: 일반적인 언어 사용의 예

날씨에 대해 말하기	자신의 나라에 대해 말하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길 물어보기
가족에 대해 말하기	길 안내하기
취미에 대해 말하기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해 물어보기
최근에 한 일에 대해 말하기	우체국 이용하기
영화에 대해 말하기	은행 이용하기
책에 대해 말하기	대중 교통 이용하기
TV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기	레스토랑 이용하기
최근에 한 여행에 대해 말하기	테이크 아웃 식품 구매하기
고향에 대해 말하기	전화 사용하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찾아서 암기하고 연습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중요한 동기 부여 원칙(즉, 학습방법을 익히는 것)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언어 학습을 포함하여 학습 전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으며, 이 책의 목적은 이 연구의 결과 중 일부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데 있다.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배울 때 어떤 방식을 따르는 이유를 이해한다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학습 기법이 향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 조건에 관한 제7장에서 ‘시차를 늘려가며

하는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시차를 넓혀가면서 배운 것은 일정기간 동안 집중된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된다. 유능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교사에게 자신의 학업 계획을 일임하지 않는다.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한 연구분야가 있는데, 이를 학습자 자율(learner autonomy)이라고 한다.

학습자에 따라 학습 스타일도 달라진다. 그렇지만 어떠한 스타일을 선호하든 적용해야 할 중요한 학습 원칙들도 있다. 아래 노트 8.1에 열거한 원칙들은 지금까지 이 책에서 살펴본 것들이다.

● 노트 8.1: 언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

1.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내고 가장 유용한 것을 배우고 언어에서 자주 쓰이는 항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언어중심 입력, 언어중심 출력, 언어중심 학습, 유창성 개발의 네 가닥 원리를 통해 학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 시차를 늘려가는 반복, 기억 되살리기, 다양한 맥락에서 마주치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다듬기(elaboration), 의도적인 주의와 같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적용하되 효과적인 언어 학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4.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언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유용한 것들을 배우고, 학습방법에 대해 배우고, 언어에 대해 배우고, 전문적인 관심(specialist interest)을 가짐으로써 동기를 유지하고 열심히 학습해야 한다.
5. 배워야 할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
6. 동의어, 반의어, 어휘 집합에 속한 낱말들과 같이 의미가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을 분리하여 학습함으로써 서로간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7. 학습방법을 배우고, 달성 가능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학습과정을 모니터하여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연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는 교실 밖에서는 제한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그러한 기회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또한 외국 여행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배우는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를 방문할 수 있으며, 주어진 기회를 잘 준비하여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해당 언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 학습을 위한 원칙을 제안한 연구자들 중에는 엘리스(Ellis, 2005), 크랑케와 크리스티슨(Krahnke and Christison, 1983), 네이션과 매컬리스터(Nation and Macalister, 2009)이 있는데, 이들의 제안은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서로 일치한다.

언어 학습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활동이다. 즉, 지금껏 보았듯이 언어를 배울 때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되며, 언어의 본질과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배우고 해당 언어 모국어 화자들의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우는 것도 재미 있는 일이다. 유의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족 (자신이 학습하는 외국어는 어떤 어족에 속하는가? 이 어족에 속한 다른 언어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언어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단어 구성 (그 언어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사용하는가?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무엇인가? 사전에는 각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가?), 분류사 (그 언어는 분류사를 사용하는가? 보다 일반적인 목적의 분류사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들은 식사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헤어질 때, 고마움을 표현할 때, 제안을 거절할 때,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관습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언어 학습은 적어도 언어 학습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L1(모국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목표는 의도적인 언어 학습을 보다 분석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지식을 쌓는 것이다.

언어 사용과 관련된 전문적인 관심을 발전시키면 학습동기가 높게 유지 될 수 있다 (활동 8.1: 쟁점일지 참조). 쟁점일지의 위험요소라 하면 전문 영역에 관련된 새로운 어휘 중 상당 부분이 전문어휘라는 점이다. 일부 전문 분야의 경우 이들 전문어휘는 해당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들일 수 있다. 다른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어휘의 상당 부분이 주제 영역 밖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전문어휘를 알고 있으면 전문 분야 밖에서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된 해부학 어휘는 주로 해당 주제 영역 (costal늑골, cervix자궁 경관, cardiac심장)에서만 쓰인다. 환경 문제 (green녹색, pollution오염, waterways수로)의 어휘는 해당 주제 영역 밖에서도 익숙하다. 보다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주제 관련 어휘가 포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언어 학습에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스포츠 (일본의 스모), 현재 진행중인 일 (무역 협상 또는 주권 분쟁), 취미 (태국 요리) 또는 문화적 관습 (자바의 웨이양 쿨릿)이 생각해볼 만한 예들이다.

활동 8.1: 쟁점일지

쟁점일지는 일정 기간 동안 광범위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선택한 주제가 특정 문화권의 결혼 관습인 경우 그들의 역사, 현재 관행 및 사람들의 결혼 태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책을 읽거나, 신문의 논설이나 기사를 읽거나, 뉴스 방송을 듣거나, 결혼식을 지켜 보거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다. 쟁점

일지를 쓰는 주요 목적은 언어 사용 및 언어 학습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데이터 수집, 분석, 기록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계속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데이터를 수집한 학습자는 주제에 대해 다른 학습자와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말해보는, 말하자면 구두로 하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얻어야 하며 주제 관련 언어 항목들을 반복하여 사용해보는 기회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일지 활동은 개별 활동으로 혼자 할 수도 있다.

범위가 좁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주제와 관련된 듣기 및 읽기 입력을 위한 어휘 부담이 다양한 주제에 집중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최소 50%) 감소한다. 또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신속하게 구축되어 입력 자료를 처리하기가 쉬워지며 입력의 양을 무리 없이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학습 지속성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많은 학습(그 언어의 문법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단어도 배워야 함)과 많은 연습(적어도 수백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큰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학습활동을 일일 목표와 주간 목표로 나누게 되면 중압감은 상당히 해소된

다. 예를 들어, 노트8.2는 어휘량을 상당히 늘리려면 읽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이 정도의 양을 읽게 되면 문법 지식과 읽기 능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노트 8.2: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는가? ●

자신이 알아야 할 단어 대부분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읽는 것이 가능할까? 표 8.5는 각 1,000 개의 단어군(word family) 기준에서 대부분의 단어를 익힐 수 있을 만큼 여러 번(약 12회) 만나려면 어느 정도의 텍스트 양을 읽어야 할지 보여주는 대략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이 표는 분당 150 단어인 보통 읽기 속도를 가정하여 만들어졌으며, 주별로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일별(일주일당 5일)로 필요한 시간도 나타낸다.

표 8.5: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1,000개의 영어 단어군9 개 수준 각각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읽기 양 및 시간

1,000 단어 목록 수준	읽을 양	매주 분당150 단어의 속도로 (하루에) 읽기에 필요한 시간
2 nd 1,000	200,000 단어	33분 (하루 7분)
3 rd 1,000	300,000 단어	50분 (하루 10분)
4 th 1,000	500,000 단어	1시간 23분 (하루 17분)
5 th 1,000	1,000,000 단어	2시간 47분 (하루 33분)
6 th 1,000	1,500,000 단어	4시간 10분 (하루 50분)
7 th 1,000	2,000,000 단어	5시간 33분 (1 일 1시간 7분)
8 th 1,000	2,500,000 단어	6시간 57분 (1일 1시간 23분)
9 th 1,000	3,000,000 단어	8 시간 20분 (1일 1시간 40분)

▲ 주별 수치는 40주 기준, 일별 수치는 주 5 일 기준으로 얻은 값임.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표 8.5는 읽어야 할 양의 증가가 ‘1,000 단어목록’의 네 번째 수준(4th 1,000)부터 연간 50만 단어씩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일곱 번째 수준(7th 1,000)부터는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년에 40주 정도는 읽기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양이지만 이 정도의 입력은 읽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듣기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입력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10,000 단어 정도의 영화 (분당 약 83 단어의 속도, 또는 분당 150 단어 읽기 속도의 절반을 갓 넘는 정도)를 보는 데 약 2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1 시간에서 1시간 40 분까지 주 5 회가 가능하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언어 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그리고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해보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전율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Nation, P. (2013a). What should every ESL Teacher Know?
Seoul: Compass Publishing.
(Available free at www.compasspub.com/ESLTK)

Nation, P. (2013b). What should every EFL Teacher Know?
Seoul: Compass Publishing.

Nation, P. & Crabbe, D. (1991).
A survival language learning syllabus for foreign travel.
System, 19(3), 191-201.

Nation, I. S. P., & Yamamoto, A. (2012).
Applying the four strands to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2), 167-181.

Pimsleur, P. (1980). How to Learn a Foreign Language.
Boston: Heinle and Heinle.